

동계 스포츠

수백만이 즐기는 시즌 여가 활동



니세코 안누푸리 스키
겔렌데 (사진제공 : 니세코
리조트 관광협회)

일본에서의 동계 스포츠 인기는 1972년, 아시아 최초의 동계 올림픽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86년에는 제1회, 1990년에는 제2회 동계 아시아 대회가 열렸다. 또한, 1998년에는 일본에서 2번째로 동계 올림픽이 나가노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동계 스포츠를 하기 좋은 기후이다. 겨울은 세계에서 가장 찬 시베리아 대기층의 영향을 받는다. 일본은 춥고 또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많아 윈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곳이다.

시베리아 대기층이 일본으로 접근하면서 일본해의 영향으로 다습해진 결과, 아시아 대륙을 마주보는 지역에서는 종종 폭설이 내린다.

1986년 니가타현의 조에쓰시에는 1층 건물을 덮어버리는 232cm의 폭설이 내렸다. 건조하고 눈이 적게 내리는 태평양 쪽 지역과는 놀랄 만큼 대조적이다.

동계 스포츠를 하기에 좋은 또 다른 환경은, 일본 국토의 4/5가 산지라는 점이다.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진 소위 일본의 알프스는 4개의 일본 섬 중 가장 큰 섬인 혼슈의 중앙을 가로지른다. 일본 알프스의 정상은 2500m가 넘는 산들로 겨울에는 눈으로 덮혀 있다. 이 지역은 일본의 3대 인구 밀집 지역(도쿄, 나고야, 오사카)으로부터 전차나 고속도로로 갈 수 있으니 이 지역들이 동계 스포츠로 유명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도쿄의 스키어가 조에쓰 신칸센을 타고 약 1시간 후면, 눈이 2-4m 썩 쌓인 니가타현이나 나가노현의 휴양지에 도착할 수 있다. 지역과 기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2월부터 4월 초까지가 스키 시즌이다.

스포츠 경기

자오 온천 스키장

야마가타현 자오 온천에 위치한 일본 동북 지방 최대의 스키장이다. 겨울철에는 많은 스키 관광객들로 붐빈다. (사진제공 : 자오온천관광협회)

다양한 국제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선수들의 기량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 동계 대회는 세계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였다. 일본은 1928년 스위스의 세인트 모리츠에서 열린 제2회 동계 올림픽부터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1948년 오슬로 올림픽을 제외하고 일본 선수단은 모든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였다.

1972년 2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제 11회 동계 올림픽에는 35개국에서 1,006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일본인이 70m 스키 점프에서 첫 금메달을 딴 올림픽이기도 하다. 1998년 2월에는, 일본에서는 2번째 열린 제 18회 동계 올림픽이 나가노에서 개최되었다. 72 국가와 지역에서 2,176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일본 팀은 스키 점프의 단체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스피드 스케이팅과 자유형 스키 등을 포함해 총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가노 올림픽에서 사용된 스키 점프대 (하쿠바 점프 경기장)
나가노현의 북알프스에 위치한 하쿠바 지역은 일본의 대규모 스키 리조트 중 하나이다. 나가노 올림픽에서는 많은 경기가 하쿠바에서 개최되었다.



리조트와 그 외 시설

혼슈의 주요 동계 스포츠 지역의 대부분은 철도 교통이 편리하며, 리프트 시설과 야간 조명을 갖추고 있다. 많은 스키장들이 도쿄가종착역인 조에쓰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쓰치타루, 나카자토, 이wat파라, 이시우치, 시오자와, 우라사, 고이데, 오지야가 포함된다.

스가다이라 스키장은 신에쓰선을 따라 연결된 아즈마야산과 네코산 사이에 위치한 스키장이다. 미야기현과 야마가타현의 경계에 위치한 자오 스키장은, 도호쿠 지역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좋은 리조트이다. 또한, 멋진 겨울 전경을 뽐내는 얼음으로 덮인 소나무 수빙이 유명하다.

홋카이도는 위도가 높아 1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스키를 탈 수 있다. 대부분의 스키장은 숙련자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슬로프를 겸비하고 있다. 이러한 스키 시설은 대부분 홋카이도의 주요 도시에서 가깝다.

스케이팅은 많은 호수와 야외 링크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즐길 수 있다. 후지산 근처 휴양지인 하코네에는 훌륭한 스케이팅 시설이 있다. 도쿄에서 전차로 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킨다

일본에서 리조트로 떠나는 겨울 휴가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같이 일본의 여가활동도 급속도로 변모하여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도 변했다. 예전에는 료칸(일본식 여관)이나 민슈쿠(민박)에 머물거나 온천과 아름다운 경치, 스키를 즐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형 호텔이 들어선 스키 리조트가 증가해 왔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스키를 즐기는 것 이상의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일식, 중식, 유럽식 레스토랑, 골프 코스, 쇼핑몰, 뷰티스파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요즘은 겨울 리조트가 스포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교통편, 호텔, 식사, 스키 리프트권 등이 포함된 국내

패키지 여행은 겨울 스포츠의 상업 경쟁력을 높였다.

리조트들은 고객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할인 패키지를 판매하고 프리스타일이나 텔레마크 스키 같은 새로운 스타일의 스키 슬로프를 제공하였다. 스노보드의 인기가 급상승해 지금은 전국 어느 스키장에서나 스노보드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스키 리조트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변모함에 따라 최근에는 일본인은 물론 해외 방문객수가 급증하였다. 일본 최대의 윈터 스포츠 리조트로 알려져 있는 홋카이도는 2018년에 220만명의 여행자가 방문했다. 이것은 2017년 대비 17.8% 증가했는데, 2013년의 방문자 수 80만명으로부터의 증가다.



스케이팅 링크
(사진제공 : Photo Kishimoto)



스피드스케이팅
(사진제공 : Photo Kishimoto)